

오륙도 칼럼



조형숙

(서원대 교수·'다문화 통령칼럼' 저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최근 필자가 다니는 대학의 융합보안학과에 교수로 임용됐다. 그 교수 주변에는 재미있는 사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항상 사람들이 북적인다. '컴퓨터가 일상화되어도 컴백 편지는 아직도 손글씨가 많아요. 필체 때문에 금방 잡힐 위험이 있는 데도 말이죠.'

컴백편지를 타이핑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 컴퓨터가 부팅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져 범죄를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범죄로 이어지는 컴백편지는 육필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주었다.

"예전과 달리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늘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필체를 프로파일링할 경우가 생겼습니다. 외국인의 글씨체가 한국인과 다른 걸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미국 유학 시절 미국인들이 쓴 글씨체를 보면서 신기해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쓴 영어 알파벳과 달리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글자를 아주 통통하게 쓴다. 미국 생활을 조금만 해도 글씨체로 한국인과 미국인을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정도다.

"외국인 범죄가 많아진 걸 피부로 느낄 정도였나요."

외국인 범죄라는 주제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오원춘 사건이 연상된다. 최근에 본 '청년경찰'과 '범죄도시'와 같은 영화도 연이어서 떠올라 김 교수에게 물었다.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전과 비교하면 늘었죠."

당연한 대답일 것이다. 한국인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주민은 계속 증가 추세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체류 외국인주민은 205만 명가량이다. 통계청은 몇 해 전 미래인구추계에서 2018년 인구절벽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올해 발표에서는 14년 뒤인 2032년 인구절벽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이주에 의한 인구의 사회적

편이다. 오원춘 사건이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것 같다.

인간은 자신을 대변해줄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인 감독이 한국 자본을 바탕으로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만들어 흥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외국인범죄 증가 알고 보면 '부풀려진 통계'

인종·국적보다는 사회·경제적 신분과 상관

이동으로 인구절벽이 연거번 셈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범죄 피의자 숫자도 한국인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3388명인데 비해 외국인의 경우 1585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외국인이 살지 않을 때는 외국인 범죄가 없었지만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가 생겼을 뿐 범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계 이주민이 메가폰을 잡는다면 어떻게.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이 어떻게 범죄 피해자가 되는지 보여줄 것이다. 더 나아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국인을 신나게 혼내주는 액션영화를 선보일지도 모른다. 물론 한국인이 쌍코피 흘리는 그런 영화를 한국인이 선뜻 돈을 내고 볼지 의문스럽지만 말이다.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산모도우미로 제2의 인생, 설레고 행복해요”

평소 아기를 너무 예뻐했고 또 딸

을 키운 엄마로서 부산돌봄사회서비스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교육을 받을 때는 모유수유, 산모마사지, 신생아목욕, 가사일 등 여러 가지 배우는 과정에 두려움이 앞서고 남의 가정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습니다.

상당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한 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대응 한다는 것이 겁이 없습니다. 특히 아기 목욕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어찌 잘못이라도 될까하는 격정에 망설였지만 산모의 허락 아래 가진 체험실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제 딸이 어느새 스물일곱이 되었습니다. 27년 만에 안아보는 것만큼 기에 저의 손놀림은 어색했지만 강사의 자상한 가르침에 저도 모르게

손이 알아서 척척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님 덕분에 산모택에 첫 근무 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전날 교육받은 내용을 보고 또 보며, 잠도 제대로 못자고 아침을 맞이하여 산모집에 도착해 노크를 하였습니다.

산모는 피곤함에 지쳐 하품을 연 신하며 문을 열어주고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모님 잘 부탁드려요"라고 말했습니다. 산모의 아침을 챙겨주고 아기마지(전문산후관리서비스)에서 교육받은 대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모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수첩에 메모한 뒤 수시로 공부했습니다. 함께 공감대를 갖고 엄마의 마음으로 진심 되게 다가가니 산모도 마음의 문을 열고 시댁, 남편 이야기를 털어놓는 편한 언니, 친정엄마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니다.

아기를 돌본다는 것은 늘 긴장해야하고 거기서 가사일과 요리까지 잡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힘든 시기에 이모님을 만나 몸조리 잘했어요"라는 산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요즘 같이 아기가 귀한시대에 많은 아기들을 내 마음대로 안아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며, 오늘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아기사진을 보며 "행복은 내안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중년의 무료한 삶에 찾아온 가장 큰 기쁨이 산모·신생아관리사 일이라고 생각하며 체력이 되는 한 저는 오래오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강영숙(산후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생)

일인분의 고독으로 살았네

팬층은 적 한 만큼 더 깊이 당신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살았네

해가 지고 바람이 불면 나에게 배달되던 일인분의 고독 건너편 집들이 불을 밝힐 때마다 가여운 그리움 눈을 뜬다네

내가 사는 이곳 당신에는 결코 건너올 수 없는 건너편이었지

너무 오래 서 있었던 나만의 그리움 오늘의 저 불빛들을 베고 단잠을 잔다네

<제11회 오륙도문학상 대상 수상작품>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안내

- 2017년 12월 1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및 의심증상시 의료기관 진료
-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철저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자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문의사항 : 남구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607-6434

신선대

<263>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2017. 12. 22.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케이에프엔에스 주식회사 (리마크빌 대연)	대연동	빌딩경비원	1명	17. 12. 22~ 채용시까지	193만원	051-626-8604
선일가스설비	문현동	전기 가스 및 수동 관련관리자	1명	17. 12. 22~ 채용시까지	월급 250만원 ~ 300만원	051-611-1952
기선츄리시티 관리사무소	대연동	빌딩전기원	1명	17. 12. 21~ 채용시까지	월급 240만원	051-610-0026
엘앤비미련(주)	감만동	배송 및 납품운전원	1명	17. 12. 21~ 채용시까지	연봉 2,700만원	051-467-8125
성림가설(주)	용당동	소형트럭운전원 (4톤 미만)	1명	17. 12. 21~ 채용시까지	연봉 3,200만원	051-643-8362
(주)경양 에너지여원 대연드림 어린이집	감만동	경리사무원 (무연임)	1명	17. 12. 21~ 채용시까지	연봉 2,000만원	051-418-6628
에이치이판매(주) (본사)	대연동	유치원교사	1명	17. 12. 21~ 채용시까지	월급 158만원	010-5535-3239
에이치이판매(주) (본사)	용당동	자가용 운전원	1명	17. 12. 21~ 채용시까지	연봉 2,800만원	051-611-5155
에이치이판매(주) (본사)	용당동	총무 및 일반사무원	1명	17. 12. 21~ 채용시까지	연봉 2,500만원	051-611-5155
취일우중합건설	문현동	경리사무원	1명	17. 12. 21~ 채용시까지	월급 158만원	010-6578-9702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강경호의 3월22일까지 2017 ⑨ 새해 문구 쓰기



오늘은 '희망'과 '2018 새해 우리고장 남구'를 주제로 새해 인사를 써 본다. 이번 포인트는 3가지.

<하나> 폭죽의 불꽃 표시하기 (사진①) - '희망'과 '남구'의 글자를 불꽃처럼 적색으로 표시한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터트리는 폭죽처럼, 심지를 타고 들어가는 불꽃을 5개의 선으로 찍는다. 불꽃이 표시된 글자와 없는 글자를 비교하면 확연하게 다르다. 표시된 글자에서는 움직임음을 느낄 수 있다. <둘> 새해 무술년 개띠, 개발 바다 그리기(사진②) - 2018년 새해는 무술년(戊戌年)으로 개띠가 된다. 개를 상징하는 개발바닥을 흑색으로 디자인하여 새해를 나타내어 본다. 개발바닥 위에는 2018년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2018을 쓴다. <셋> 가는 펜으로 새해인사 쓰기(사진③) - 새해인사 문구를 필기구 속이 얇은 플러스 펜으로 마무리한다. 손글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정 중앙에 배치하고, 문구 앞뒤로 따옴표를 표시하여 친근함을 표현한다. 문화기획자 겸 지역플랫폼 뉴스부산(www.newsbusan.com) 대표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현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산타라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8. 1.>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정소	연락처
대연동	연포산악회	1/14(일)	함천 가야산	010-3832-5971
	약천산악회	1/17(일)	해인사 소리길	010-4655-4370
	백호산악회	1/10(수)	구미 천생산	010-5621-4007
	금강산악회	1/7(일)	남덕유산	010-3865-9051
용호동	용호산악회	1/14(일)	영동 월유봉	010-4657-7051
	청산산악회	1/7(일)	태백산	010-8008-2087
	해월산악회	1/21(일)	지리산 2둘레길	010-7154-3166
	신선산악회	1/14(일)	남덕유산	010-6520-0167
용당동	용호산악회	1/28(일)	청학동 삼성궁	010-6266-8525
	용호산악회	1/28(일)	영동군 민주지산	010-2124-9329
	청심산악회	1/28(일)	영주 소백산	010-2736-7553
	용마산악회	1/14(일)	구미 금오산	010-2692-1170
감만동	백운산악회	1/28(일)	강원 태백산	010-2861-3177
	녹색산악회	1/28(일)	거제 노자산	010-7342-3426
	오솔길산악회	1/21(일)	고성 통화산	010-6287-1192
	우일산악회	1/7(일)	순천 조계산	010-3595-5848
우암동	우남산악회	1/21(일)	남해 대방산	010-7520-6666
	문현2동산악회	1/14(일)	백암산 백암온천	010-2902-8322
	원부리산악회	1/21(일)	거창 우두산	010-4564-7769
	산누리산악회	1/7(일)	한라산	010-4035-3432
문현동	문사산악회	1/14(일)	광양 백운산	010-8466-8662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